

박찬호 Mets 에 새 둠지

(뉴욕 메츠)

1년간 300만달러...제 3선발로 뿔 듯



한국인 메이저리거 '만형' 박찬호(34·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뉴욕 메츠에 새 둠지를 틀었다.

박찬호의 국내 매니지먼트사인 팀61(대표 김만섭)은 9일 자유계약 선수(FA) 박찬호가 메츠와 1년 간 옵션을 포함해 총 30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박찬호는 지난 1994년 LA 다저스에서 처음 빅리거로 데뷔한 뒤 2002년 텍사스 레인저스, 2005년 샌디에이고를 거쳐 네 번째 팀에 몸담게 됐다.

박찬호는 톰 글래빈과 올랜도 에르난데스에 이어 제 3선발로 메츠 선발진의 주축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메츠는 뉴욕 양키스와 함께 전통의 명가. 1962년 팀 창단 후 1969년과 1986년 두 차례나 월드시리즈를 제패했다. 2000년 '지하철시리즈'로 불린 양키스와 월드시리즈 때는 1승 4패로 챔피언 반지를 내쳤다.

지난 해 동부지구 1위로 포스트시즌에 올라 LA 다저스를 꺾고 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 진출했으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3승4패로 저 월드시리즈 진출에는 실패했다.

홀구장은 세이스타디움(5만5천700명 수용 규모), 서재응(30·탐과 베이 델레이)이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 간 몸담았던 팀이라 한국 팬에게도 친숙하다.

박찬호는 앞서 '선발로 뿔 수 있는 서부지구 팀'을 원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배리 지토와 랜디 존슨을 영입하면서 길이 막혔고 친정팀 샌디에이고는 최근 제6선발 자리를 제외했다.

그러나 에이전트를 스카 보라스에서 제프 보리스로 바꾼 후에도 FA 계약 소식이 없었던 박찬호는 샌디에이고의 제의를 거절했고 마침내 선발 주축으로 뿔 수 있는 동부지구의 메츠를 선택했다.

뉴욕이 다저스의 근거지인 로스앤젤레스 다음으로 한인 동포가 많은 점도 계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호는 오는 16일 메츠 캠프가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세인트 루시로 이동, 훈련에 합류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뉴욕 메츠는

WS 두차례 우승

서재응·구대성 활약

한국인에 친근한 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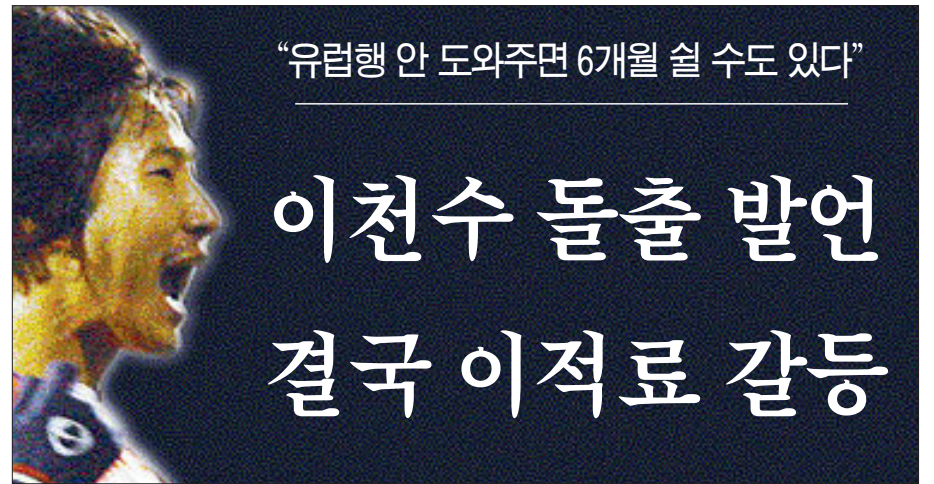
미국 프로야구 뉴욕 메츠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 속한 강팀이다. 1962년 창단한 메츠는 1969년과 1986년 등 통산 두 차례 월드시리즈에서 명승부를 연출하면서 우승해 '기적의 메츠'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비교적 짧은 역사에서도 리그 챔피언에 4차례 오르고 지구 챔피언을 5차례 차지했다. 메츠는 메이저리그 최고 인기구단인 양키스보다 인지도에서는 밀리지만 대부분 팬이 화이트칼라라는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뉴욕 양키스 코치 출신인 윌리 랜돌프 감독이 2004년 11월부터 지휘봉을 잡고 있고 오마 미야라 단장이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메츠는 델가도과 카를로스 벨트란, 폴 로우카, 데이비드 라이트 등의 버티는 공격력이 막강하다.

지난 해 10월 어깨수술을 받은 마르티네스는 시즌 후반기에 돌아올 수 있지만 톰 글래빈, 올랜도 에르난데스, 존 메인 등의 선발진도 믿음직해 올해에도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힌다.

메츠는 서재응(30·탐과베이)이 1997년 12월 입단해 지난 해 1월 LA 다저스로 트레이드 될 때까지 8년간 뛰었고 구대성(37·한화)이 2005년 한 시즌 동안 활약한 팀으로 한국인 메이저리거와 인연이 깊다.



"유럽행 안 도와주면 6개월 쉴 수도 있다"

이천수 돌출 발언 결국 이적료 갈등

이천수(26·울산 현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 문제가 제 2의 사태를 맞고 있다.

이천수는 그리스전을 마친 뒤 지난 8일 귀국하면서 "울산 현대가 오는 7월 '유럽행 약속'을 문서화해 주지 않으면 6개월 동안 쉴 수도 있다"는 돌출 발언을 했다.

이는 소속팀 울산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발언으로 지난 1월 위건행 무산에 대한 서운한 감정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이천수의 위건행 무산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돈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고래대 재하 시절 이천수를 데려온 울산은 그동안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울산은 이같은 투자에 비해 그리 큰 소득을 손에 쥐지는 못했다.

지난 2003년 7월 이천수의 스페인 레알 소시에다드로 진출 과정에서 30억원 이상의 이적료가 오갔지만, 울산에게 돌아온 돈은

예상외로 미미했다.

이천수가 입단 당시 해외 이적시 이적료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천수는 지난 2005년 여름 친정인 울산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 과정에서 울산은 이천수의 이적료로 약 25억원을 내보야 했다.

이러한 사연속에 이천수는 또 다시 국내를 떠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길 원하고 있다. 울산도 이천수의 간곡한 요청에 조건만 맞으면 해외로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걸림돌이 생겼다. 바로 이적료다. 울산은 이천수의 몸값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300만달러(약 28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적료가 높으면 잉글랜드행도 당연히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이천수의 이번 발언은 자신의 이적료를 낮춰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베어벡호 '킬러들의 전쟁'

조재진·이동국 등 원톱 경쟁률 7대1

근래 보기 드문 스트라이커들의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새해 첫 축구대표팀 A매치에서 산뜻한 승리를 거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간 베어벡호(號) 얘기다.

아직 유럽에 머물면서 유럽과 점점과 올림픽축구 예선 상대팀 전력 분석을 준비하고 있는 김 베어벡 축구대표팀 감독은 그동안 조재진(26·시미즈)을 선호했다. 작년 8월 아시안컵축구 예선 대만 원정과 11월 이란 원정을 제외하면 세 차례 소집에서 주전 원톱(one-top)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다.

덕 아드보카트 감독이 있던 지난 해 독일월드컵축구 본선에서도 주전을 꿰찼다.

하지만 조재진은 다음 달 24일 열리는 A매치(상대 미정)부터는 불꽃튀는 경쟁을 각오해야 할 상황이다.

그동안 무적(無籍) 선수라 부르지 않던 안정환(31·수원)과 장기간 부상으로 빠져있던 프리미어리그 4호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소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베어벡은 안정환, 이동국을 대표팀에 뽑지 않겠다고 했지만 '2월'에 국한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몸 상태가 호전되면 언제든지 다시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베어벡은 "3월24일 A매치에 톱을 부를 생각이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만 원론적으로 답했다. 소속팀에서 향상된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열린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영건 그룹'의 도전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정조국(24)과 박주영(22·이상 FC서울), 김동현(23·성남)이 주인공들이다.

또 한 명의 변수는 설기현(28·레딩 FC)이다. 설기현은 좌·우 측면 포워드 요원이 풍부한 베어벡호에서 중앙 원톱으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멀티 플레이어이다.

베어벡은 그리스전에서 원 포워드로 내보냈던 설기현을 조재진 대신 잠시 원톱으로 기용해보기도 했다. 7월 아시안컵 축구 본선을 앞두고 '킬러들의 전쟁'이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안선주 이틀째 단독 선두

LET ANZ레이디스마스터스



안선주(20·하이마트·사진)가 유럽여자자프로골프(LET) 투어 ANZ레이디스마스터스에서 이틀째 단독 선두를 달렸다.

안선주는 9일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의 로열과인스리조트(파72·6천443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더파 68타를 쳐 중간합계 12언더파 132타를 작성, 2위인 미셸 엘리스(호주)에 1타를 앞섰다.

1번홀을 출발한 안선주는 3~5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는 등 15번홀까지 버디만 5개를 슈어했다. 그러나 마지막 18번홀에서 1타를 잃은 것이 아쉬웠다.

안선주는 1.2라운드 통산 그린 적중률 83.3%에 홀당 퍼트 수는 1.53개에 그치는 등 정교한 아이언샷과 퍼트 감각을 마음껏 발휘했다.

'슬로우 스타터' 신지애(19·하이마트)도 이날 6언더파 66타의 데일리베스트샷을 때리면서 합계 8언더파 136타로 공동 4위까지 치고 올라와 우승을 향한 잔결을 시작했다.

첫날 공동 26까지 처졌던 신지애는 이글 1개와 버디 5개, 보기 1개를 작성하면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특히 최근 드라이브샷 거리를 늘렸다는 신지애는 이날 평균 277야드의 호쾌한 드라이브샷을 구사했다.

지은희(21·LIG-김영주골프)도 3타를 줄여 합계 7언더파 137타로 공동 6위로 도약했고, 윤수정(20·금강제화)은 합계 5언더파 139타로 카리 웹(호주)과 공동 13위에 올랐다. 박희영(20·이수건설)은 1타밖에 줄이지 못해 합계 3언더파 141타로 공동 27위에 머물렀고, 최나연(20·SK텔레콤)은 합계 1언더파 143타로 컷 통과에 턱걸이했다. 그러나 타이틀 방어에 나선 양희영(18·삼성전자)은 이날 퍼트가 흔들리면서 3오버파 75타를 쳐 중간합계 2오버파 146타로 컷오프됐다.

최경주 컷 탈락 위기

PGA투어 AT&T 페블비치

최경주(37·나이키골프)와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1라운드에서 동반 부진에 허덕였다.

최경주는 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페블비치의 포퍼힐스골프코스(파72·6천833야드)에서 치른 1라운드에서 버디는 3개에 그치고 보기 5개를 쏟아내면서 2오버파 74타를 쳤다. 7언더파 65타씩을 친 선두그룹에 9

타나 뒤져 공동 96위까지 밀린 최경주는 컷 탈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최경주와 같은 코스에서 경기를 펼친 위창수는 버디 3개에 보기 4개, 더블보기 1개 등을 묶어 3오버파 75타로 부진했다. 공동 116위로 처진 위창수 역시 남은 사흘 분발하지 않으면 삼금 수렁이 어려울 전망이다.

시즌 초반 퍼팅 난조에 발목이 잡혀 하위권을 맴돌았던 필 미켈슨(미국)은 포퍼힐스코스에서 7언더파 65타를 뿜어내며 공동 선두에 올라 시즌 첫 우승을 바라보게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보랏빛 환상 유혹

중국의 웨신(아래)과 홍보자 오가 9일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월드 아레나에서 열린 ISU 4개 대륙 피겨 스케이팅 챔피언십 페어 부문에서 아름다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시범경기

다음달 17일 개막

올 시즌 프로야구 정규시즌 관도를 예측할 수 있는 시범무대인 시범경기가 다음 달 17일 막을 올린다.

일본 미야자키와 오키나와, 미국 하와이 등지에서 전지훈련 중인 8개 구단은 3월17일 KIA-SK(광주)와 삼성-한화(제주), 현대-두산(수원), 롯데-LG(마산) 경기를 시작으로 오는 4월1일까지 총 16일간의 시범 경기를 벌여 각 팀의 전력을 탐색한다.

팀당 14경기씩 총 56경기를 소화하며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신인 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기량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매각 협상 중인 현대가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해 참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프로야구 생활을 접고 국내 무대로 복귀한 투수 봉준근(LG)과 최환남(롯데)을 비롯해

일본으로 건너간 그레이싱어를 대신할 용병 에서튼(KIA)의 활약 등이 관심거리다.

또 자유계약선수(FA) 대박을 터뜨리며 무산에서 LG로 동지를 옮긴 박명환과 거센 신인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 '대형 투구' 투수 김광현(SK)도 실력을 평가받는다.

올해 시범경기는 야구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 이후 세 번째로 제주에서 열리며 지난 해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었던 삼성과 한화의 개막 2연전이 예정돼 있다. 두산과 LG는 홈구장인 잠실구장을 새 단장하고 있어 마산에서 홈경기를 4경기씩 치른다.

시범경기 시작 시간은 낮 1시. 입장료는 받지 않으며 연장전과 연속경기(더블헤더)는 없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